

투데이 칼럼

북한의 개혁·개방 문제

북한의 개혁개방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에 달렸다. 북한은 미국이 제시한 당근 보따리를 쟁겨 북한 체제를 보



정복규

논설위원·통일교육원

한반도 비핵화 담판은 향후 북한 체제의 명운을 좌우하는 일이다. 김정은이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9년 동안 핵과 미사일 도발, 권력 기반 다지기, 경제

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초기부터 북한 체제를 개혁·개방할지 모른다는 기대를 모았다.

집권 첫해인 2012년 7월 부인 이설주를 대동하고 관광한 모란봉 악단 창단 공연 무대에는 미키마우스와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고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라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공언했다.

같은 해 6월에는 노동당이 통제하는 공장·기업소 등 경제 단위에 자

이듬해 5월에는 경제개발구법을 만들어 중앙급 경제특구(6개)와 지방급 경제개발구(22개) 등 모두 27

2013년 3월 말엔 노동당 전원 회의를 통해 경제·핵 병진노선을 제시하기도 했다. 핵보유로 재래식 무기

하지만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발

사에 무게가 실린 병진노선은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는 해상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던 유조선 환적 행위까지 추

최고인민회의가 발표한 북한 예산 집행 결과에 따르면 16% 수준의 국방비 비중은 병진노선 제시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 더욱이 북한의 국방

결국 5년 만에 경제·핵 병진노선의 포기를 선언하고 경제에 매진하겠다는

김정은이 개혁·개방 노선을 선택한다는 건 체제의 명운을 건 모험일 수 있다. 이는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김일성 주석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업한 지 70년 동안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이다. 김정은이 개혁·개방으로 나갈 수 있을지는

할아버지 김일성도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 지상 낙원'은 공수포가 됐다. 현실은 차

사설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문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내년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이제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에 재정을 지원하는 효과와 지역 문제 해결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특

기부 대상도 고향 즉 주민들 특산물 출산지로 한정하지 않고 거주지 이외 모든 지방자치단

반면 전라북도도 도와 주민에게서만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

도와 출향민이 우선 시군에 납부하고 추가적인 납부를 전라북도

기업의 안전 불감증 여전

기업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 안전 불감증은 대한민국처럼

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후 설 연휴가 이어졌고 기업들은 대거 휴업에 들어갔다. 그런데도

열흘 뒤에는 성남시 판교 제2 테크노밸리 내 한 건물 신축 공

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4개 시·군 지역 특산물 세트, 지역상품권 또는

복지, 문화, 농업, 지역개발 등 지역 주민의 복리와 관계된 부

먼저 농어민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 지역 청년 등이 참여하는

고향사랑기부법 추진은 단기적으로 지방의 열악한 재정을

중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그로부터 사흘 뒤에는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3

여전히 기업은 안전 문제를 비용으로 보고 있다. 사고 발생에

법 시행을 앞두고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한 부서를 만들고

특히 팽질식 솜방망이 처벌만 이뤄지면서 중대재해는 반복돼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닌텐도 월드 방문객 맞은 '슈퍼 마리오' 형제



지난 16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유니버설 스튜디오 할리우드에서 '닌텐도 월드' 사전 공개 행사가 열려 '슈퍼 마리오' 형제가 방문객을 맞고 있다.

프랑스 노조 연합 '다음 달 7일 대대적인 파업'



지난 16일(현지시간) 프랑스 북부 릴에서 정년 나이를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행진하고 있다. 프랑스 내무부는 전국에서 이어지던 연금 개혁 반대 시위 참여 인원이 점점 줄고 있다고 전했다.

Large graphic with a boat on waves and a sun/moon, containing the text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and '전주매일' logo.